



## 거룩함의 변주, 사랑

조정호 교육목사(광진교회) 장로회신학대학교 Ph.D.

### 1. 들어가는 말

거룩함과 사랑의 관계성은 주로 레위기 19장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마일렌버그(J. Muilenburg)는 레위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사랑을 의미한다고 본다.<sup>1</sup> 웨햄(G. Wehham)과 밀그롬(J. Milgrom)은 레위기 19장 주석에서 18절에 나타나는 사랑이 11절부터 계속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거룩함의 핵심으로서 레위기 19장의 문학적, 신학적 정점을 형성한다고 본다.<sup>2</sup> 그들에게 사랑은 이스라엘의 거룩함 성취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은 거룩함의 윤리적 차원이다. 롱슨(J. E. Robson)은 사랑을 제의와

1 J. Muilenburg, "Holiness," Butterick, G. A. (ed.) (*IDB 2*; New York: Abingdon, 1969), 622.

2 G. J.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NICO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9), 266-267; J. Milgrom, *Leviticus: 17-22* (AB 3A; New York: Doubleday, 2000), 1656.

윤리적인 분리 외에 거룩함의 ‘잊혀진 차원’으로 보고, 하나님의 자기-노출(self-disclosure), 구원 행위, 임재에서 사랑이 드러난다고 제안한다.<sup>3</sup> 룩슨에게 있어서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윤리적인 차원은 아니지만, 여전히 거룩함의 또 다른 차원이다.

한편 위의 연구들과 달리, 레위기 19장이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로 전개되는 양상을 연구한 김진명<sup>4</sup>은 두 본문 간의 본문상호성(intertextuality)<sup>5</sup>에 근거하여 레위기 19장의 거룩함과 규례 준수 명령이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에서 사랑과 규례 준수 명령으로 전개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두 본문에 각각 내포된 거룩함과 사랑에 대한 일목요연한 신학보다는 레위기 19장 본문 자체의 전개 양상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두 본문이 제시하는 모든 규례를 아우르는 신학사상으로서의 거룩함과 사랑의 관계성을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은 유사한 규례를 각각 거룩함과 사랑의 주제 아래 제시한다. 이 점에서 사랑은 단지 거룩함의 한 차원이 아니라 거룩함과 대등한 신학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언어와 신학적 모티브를 기반으로 모든 규례를 포괄하는 신학사상에서 두 본문의 관련성을 밝힌다면,<sup>6</sup> 그 결과를 통해 거룩함이 사랑으로 변주<sup>7</sup>되는 과정을 보여

3 J. E. Robson, "Forgotten Dimensions of Holiness," *Horizons in Biblical Theology* 33(2011), 131-32. 룩슨이 사랑을 거룩함의 잊혀진 차원이라고 명명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약학에서 거룩함과 사랑의 관계성은 그리 활발히 논의되는 주제는 아니다.

4 김진명, "레위기 19장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주석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7).

5 'intertextuality'는 '상호본문성', '본문 상호 간 해석', '간본문적 상호관련성', '간본문적 해석' 등 여러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된다. 김진명은 이 용어를 '본문상호적해석'이라고 번역하면서, 이 용어가 본문 상호간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춘 해석방법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보았다(윗글, 12-13의 각주 38). 본 연구는 김진명의 번역을 존중하면서도 'intertextuality'가 본문들 간의 관련성 자체를 언급할 경우에는 '본문상호성'이라고 하였다.

6 정석규는 본문상호성을 본문 혹은 전통들 간의 언어나 신학적인 모티브의 반복(echo), 인용(cite), 변형(paraphrase), 암시(allude), 변화(shift), 재개념화(reconceptualize)에서 발견한다. 정석규, "신명기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거룩함이 사랑으로 변주되는 것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가 이 목적을 위하여 채택한 방법론은 김진명이 제안한 정경적 전개(canonical unfolding)이다. 정경적 전개는 최종 본문 상에서 “한 본문이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 어떻게 인용되거나 변형되고, 해석되면서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이다.<sup>8</sup> 김진명은 레위기 19장이 구약성경(레 19; 신 10:12-11:1; 잠 20:10-23; 속 7:8-14)과 신약성경(마 5:21-48; 롬 13:8-14; 벧전 1:13-25)에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본 후, 그 결과를 정경 전체의 맥락에서 해석하였다. 정경적 전개는 최종 본문이 밝히는 시간적 배경을 실제 역사로 보고, 그 순서대로 대상 본문이 전개된다고 전제한다. 그러므로 정경적 전개는 본질적으로 공시적인 방법론으로서, 역사비평적 방법으로 재구성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을 형성한 성경 속의 역사를 따른다는 장점을 가진다.

정경적 전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본문상호적해석<sup>9</sup>이므로, 연구는 두 본문간의 본문상호성을 밝히는 것에 집중하면서 다음의 세 과정으로 진행할 것이다. 첫째, 레위기와 신명기 전체의 구조 분석으로 거룩함과 사랑이 각 책의 중심 사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이 각 책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하고, 그것이 거룩함과 사랑의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다. 둘째,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의 본문상호성을 두 본문의 구조, 언어적 표현, 신학사상의 측면에서 관

17:14-20의 Intertextuality를 통한 해석,” 「구약논단」 제11집 (2001), 51.

7 ‘변주’는 “어떤 주제를 바탕으로, 선율·리듬·화성 따위를 여러 가지로 변형하여 연주함. 또는 그런 연주”라고 정의된다(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search?query=%EB%B3%80%EC%A3%B-C&range=all>). 레위기 19장의 거룩함을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규례들이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에서는 사랑을 규정하고, 핵심적인 어휘와 신학사상을 공유하면서 두 본문의 전개 과정에서 세부적인 변화가 나타나므로 거룩함이 사랑으로 변주된다고 볼 수 있다.

8 김진명, 윗글, 18.

9 김진명, “레 19장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주석적 연구,” 「구약논단」 24집(2007년 6월), 74.

찰한다. 셋째, 정경적 전개의 전제를 바탕으로 거룩함이 사랑으로 변주되는 과정을 신학적으로 해석한다.

## 2. 레위기와 신명기의 구조와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의 위치

### 1) 레위기의 구조와 레위기 19장의 위치

레위기를 1-16장(P)과 17-26장(H)과 27장으로 나눌 때,<sup>10</sup> 전반부(1-16장)는 정결(טָהוֹרַת/타헤르)의 주제를 중심으로, 후반부(17-26장)는 거룩함(קִדְּוָה/카다쉬)의 주제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전반부는 제사법(1-7장), 제사장 위임식(8-10장), 정결법(11-15장), 대속죄일(16장)을 포함하고, 후반부는 피 섭취(17장), 성윤리와 사회윤리(18-20장), 제사장 관련 규례(21-22장), 거룩한 시간에 대한 규례(23-25장)와 축복과 저주(26장)를 포함한다. 27장은 부록으로 본다.

전반부에서 1-7장과 8-10장은 제사를 매개로 연결되어 있다.<sup>11</sup> 본 연구가 제사를 매개로 하는 1-7장과 8-10장을 정결이 주제인 단위(1-16장)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희생을 요구하는 번제, 화목제, 정화제, 속건제의 주된 기능은 제물의 피를 통한 정결이기 때문이다.<sup>12</sup> 정결은 16장 속죄일 의식에서 절

10 정중호는 레위기를 1-16장(P), 17-26장(H), 27장으로 구분하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다고 본다(정중호, 「레위기: 만남과 나눔의 장」(서울: 한들출판사, 1994), 18). 본 연구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주제의 동질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 견해를 수용한다. 레위기의 구조에 대한 다른 견해들에 대해서는 노세영, 「레위기 18-20장의 문학적 및 신학적 의미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77집(2020년 9월), 70-105 참고.

11 하틀리는 레위기 7장 37-38절이 1장 1절부터 7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와 8-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 위임식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1-7장과 8-10장을 연결시킨다고 지적한다. 존 E. 하틀리, 「레위기」(김경열 옮김), (서울: 솔로몬, 2005), 47. 원제는 J. E. Hartley, *Leviticus* (WBC 4; Dallas: Word Books, 1992).

12 고든 J. 웬햄, 「레위기」(김귀탁 옮김),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4), 41-42. 원제는 G. J.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79). 프리젠(Th. C. Vriezen)도 희생제사의 3대 요소 중 하나로 죄로부터의 정결을 든다. T. C. Vriezen, *An Outline of Old Testament Theology* (Oxford:

정에 달한다(레 16:16, 19).<sup>13</sup> 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의 삶에서 비롯된 모든 죄와 부정으로 오염된 성소를 정화하는 것(레 16:16)이므로 속죄일 규정이 정결법(11-15장) 이후에 위치한다.<sup>14</sup>

후반부에서 18-20장은 우상숭배와 문란한 성관계 금지를 포함한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을 강조한다. 21장은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규례를 제시한다. 22장은 제사에 드려진 성물 먹는 것에 관한 규례(22:1-16)와 제물(서원, 자원, 감사제물)에 대한 규례(22:17-33)를 제시한다. 23-25장은 안식일, 절기, 안식년, 희년 등 거룩한 시간의 주기를 기록한다.<sup>15</sup> 26장 2절은 19장 30절과 동일하고, 두 본문은 구약성경에서 안식일 준수와 성소 경의를 동시에 명령하는 단 두 곳에 해당하므로 26장 역시 거룩함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레위기 19장이 포함되어 있는 18-20장은 거룩함이 주제인 후반부에서도 고유한 위치를 차지한다. 17장과 21-25장이 제의와 관련되는 규례를 주로 포함하는 것과 달리, 18-20장은 윤리와 관련된 규례를 집중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이다. 우상숭배와 성관계에 대한 유사한 금기들을 기록한 레위기 18장과 20장은 19장의 앞뒤에 위치하여 ABA'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구조는 일상생활에서의 윤리규정을 담고 있는 19장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sup>16</sup> 그리하여 레위기 19장은 아모스 5장, 미가 6장, 에스겔 18장, 욥기 31장과 함께 최고 수

---

Basil Blackwell, 1954), 286. 프리젠은 제의 생활의 3대 요소인 여호와의 영광, 그분과의 교제, 죄로부터의 정결이 희생제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였다.

13 존 E. 하틀리, 윗글, 51.

14 윗글, 50.

15 레위기 24장 10-23절은 야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므로 거룩한 시간 주기와는 관련되지 않는다. 그러나 야훼의 이름 모독은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해치는 행위(노세영, 윗글, 93-94)이므로 이 본문 또한 거룩함의 주제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16 J. Milgrom, *Leviticus: A Book of Ritual and Ethics* (CC: Mineapolis: Fortress Press, 2004), 175; M. Douglas, "Justice as the Cornerstone An Interpretation of Leviticus 18-20," *Interpretation: A Journal of Bible and Theology* 53 no. 4 (1999), 343.

준의 구약 윤리를 담고 있는 본문 중 하나로 꼽히고,<sup>17</sup> 구약성경에서 거룩함을 가장 잘 드러낸 본문으로 평가받는다.<sup>18</sup> 거스텐버거(E. S. Gerstenberger)와 코데이(A. Cothey)는 거룩함을 명령하는 2절이 레위기 19장의 서문으로서, 거룩함을 중심으로 이 장(章)을 요약한다고 본다.<sup>19</sup> 본 연구가 제시하는 레위기 19장의 구조 역시 이 점을 보여주므로, 본 논문은 레위기 19장이 제시하는 모든 규례를 거룩함과 관련하여 해석한다.

## 2) 신명기의 구조와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의 위치

신명기는 십계명과 권고적인 훈계(5-11장)와 신명기 법전(12-26장)을 중심으로 그 앞뒤로 출애굽 이후의 광야 여정 회고(1:1-4:43)와 모압 계약 체결(29-30장)과 후기(31-34장)를 배치한다. 1-11장은 신명기의 중심부인 신명기 법전을 도입하는 두 개의 서론(1:1-4:43; 4:44-11:32)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신명기 서론의 일부인 5-11장은 신명기 법전에서 펼쳐지는 상세한 계약 율법들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진술이면서,<sup>20</sup> 궁극적으로는 웨마(신 6:4-5)와 십계명의 첫 두 조항에 대한 해설을 포함한다.<sup>21</sup> 특히 웨마는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자 신명기 법전의 구체적인 계약 율법조항이 삶의 현장에서

17 J. Gammie, *Holiness in Israel*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9), 33-34.

18 B. A. Levine, *Leviticus*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1989), 125; I. Knohl, *The Sanctuary of Silence: The Priestly Torah and the Holiness School* (Minneapolis: Augsburg, 1995), 182; A. Cothey, "Ethics and Holiness in the Theology of Leviticu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0, no.2 (2005), 132; J. E. Robson, *윳글*, 122; J. Muilenburg, *윳글*, 622.

19 E. S. Gerstenberger, *Leviticus: A Commentary*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3), 261; A. Cothey, *윳글*, 132.

20 A. D. H. Mayes, *Deuteronomy* (NCBC;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and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1991), 160.

21 P. D. 밀러, 「신명기」(김희권 옮김), (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121. 원제는 P. D. Miller, *Deuteronomy*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90).

가지게 될 의미를 부여한다고 여겨진다.<sup>22</sup> 신명기의 서론은 신명기 전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신명기 신학의 중심 사상을 예시한다.

신명기 4-7장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선택과 출애굽과 가나안 땅의 수여(4:37-38),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4:39-40; 5:10; 6:4-5),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번성의 복(7:12-16),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의 내용(10:17-21)을 모두 ‘사랑’을 뜻하는 어근 אהב(아하브)로 개념화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이후에 제시될 신명기 법전의 사상을 특징짓는 개념 혹은 신명기 전체 사상의 중심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은 5-11장의 훈계를 요약하면서,<sup>23</sup>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사랑을 구약성경 어느 본문보다 집중적으로 보여준다.<sup>24</sup> 그러나 이 단락은 5-11장을 마무리하는 더 큰 단위인 10장 12절-11장 32절에 포함되어 있어 그 자체로 독립적인 단락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이 소단락이 10장 22절과 11장 1절 중 어디에서 끝나는지에 대한 이견들이 있지만,<sup>25</sup> 본 연구는 넬슨(R. D. Nelson)과 같이<sup>26</sup> 11장 1절이 ‘사랑하다,’ ‘지키다’ 등의 어휘로 10장 12-13절과 연결된다고 보고 10장 12절-11장 1절을 한 단락으로 묶는다.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은 아하브를 총 5회 사용하여 4-7장이 넓은 범

22 윗글, 164-165.

23 J. E. Lapsley, “Feeling Our Way: Love for God in Deuteronomy,”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65 no.3(2003, July), 361.

24 랩슬리(J. E. Lapsley)는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이 신명기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주장한다(윗글, 361). 그러나 필자는 아하브 용례 조사를 통해 이 본문이 구약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을 가장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본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25 밀러는 10장 12-22절을 5-11장을 마무리하는 첫째 결론이라고 본다(P. D. Miller, 윗글, 56. 혹은 이 본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여야 할 헌신을 아름답게 요약했다고 본다(S. L. Cook, *Reading Deuteronomy: A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Macon: Smyth & Helwys Publishing, 2015), 99). 티게이는 10장 12-22절을 한 단락으로 보면서도 11장 1절이 11장을 도입하는 동시에 10장 12-22절을 종결하는 전환절로서 가능하다고 본다(J. H. Tigay, *Deuteronomy*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1996), 109).

26 R. D. Nelson, *Deuteronomy* (OTL; Louisville·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138.

위에 걸쳐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랑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랑을 압축적으로 재현한다. 2회는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거류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3회는 하나님과 거류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었다.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랑과 선택과 그 내용, 이스라엘의 하나님 경외와 섬김과 그 내용을 사랑으로 개념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에 대한 이해는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것이다.

### 3.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의 다층적 본문상호성

#### 1)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의 구조를 통한 본문상호성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의 구조는 거룩함과 사랑의 두 가지 공통된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거룩함과 사랑은 각각 상호적이다. 둘째, 이스라엘은 법도와 규례를 준수함으로써 거룩함을 성취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 (1) 레위기 19장의 구조

A 19:2aβ 이스라엘에 대한 거룩함 명령

B 19:2b 하나님의 거룩함 천명(야훼는 거룩하시다) - 야훼에 대한 묘사 1

C 19:3-36a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위한 규례(하나님 경배, 사랑, 공의)

B' 19:36b 하나님의 거룩함(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 야훼에 대한 묘사 2

A' 19:37 법도와 규례 준수 명령

레위기 19장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도록 주어진 법도와 규례(3-36a절)를 중심(C)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진술(B와 B')과 이스라엘에 대한 거룩함과 규례 준수 명령(A와 A')이 교차대구를 형성한다. 이 구조는 이스라엘에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써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그 법도와 규례가 레위기 19장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한다. 이에 반해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에 대하여 매우 제한된 묘사만을 제시한다(B와 B').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레위기 19장이 밝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행위로서, 이스라엘 구원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야훼에 대한 묘사는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로 작동한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법도와 규례를 지킴으로써 거룩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스라엘의 거룩함의 상호성이 함축되어 있다.

## (2)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의 구조

A 10:12-13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랑과 계명 순종 명령

B 10:14-15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랑과 선택

C 10:16 이스라엘의 완고함에 대한 경고<sup>27</sup>

D 10:17-18 하나님의 성품(사랑: 공의와 정의, 약한 자의 필요 공급)

C' 10:19-20 이스라엘의 거류민 사랑과 하나님 경외 명령

B' 10:21-22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수를 많게 하심

A' 11:1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랑과 계명 순종 명령

27 이스라엘이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끈게 하지 않는 것(C)은 하나님을 경외하기(C') 위한 전제이다(신 30:6).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은 하나님의 성품(10:17-18)을 중심(D)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요구와 명령(A와 A')이 문단의 양끝을 감싸면서 하나님의 행위(B와 B')와 성품(D)과 그에 합당한 이스라엘의 반응(C와 C')이 교차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그 중 B(10:15), D(10:18)와 A(10:12), C'(10:19), A'(11:1)에 각각 아하브가 사용되었다.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를 묘사하는 세 개의 단위 중 두 군데에 '사랑'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에 주어진 요구 혹은 명령을 기록한 단위 네 개 중 세 군데에 '사랑하라'는 명령이 나온다. 총 5회 반복적으로 사용된 동사 아하브가 이 소단락의 구조와 연동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사랑은 상호적이다. 또한 A와 A'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계명 순종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2)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의 언어상의 본문상호성

### (1) 사랑 (아하브)

궁(게르/거류민) 사랑 명령은 구약성경에서 단 두 곳, 레위기 19장 34절과 신명기 10장 19절에만 나타나는 표현으로서 두 본문의 직접 인용 관계의 증거가 된다. 두 본문은 거류민 사랑 명령 외에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거류민이었다는 원인절을 공유한다.

거류민 사랑은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의 직접 인용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이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아하브의 사용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첫째,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에서 사랑의 주체가 확대된다. 레위기 19장에서 사랑의 주체는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지만,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에서는 하나님도 사랑의 주체로 나타난다(신 10:15, 19). 둘째, 이스라엘의 사랑의 대상이 레위기 19장보다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에서 확대된다. 레위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은 이웃과 거류민을 사랑해야 하지만

(레 19:18,34),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은 이스라엘에게 거류민에 대하여(신 10:19)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한다(신 10:12; 11:1).

(2) 편들지 않음  $\text{לֹא יִשְׁכַּח} + \text{לֹא}(\text{로} + \text{나사 파네})$

레위기 19장 15절과 신명기 10장 17b절은 ‘로 + 나사 파네’의 형태로 ‘편들지 않음’을 표현한다. 이 표현은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이 직접 인용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이다. 구약성경이 재판에서의 공의를 ‘편들지 않음’으로 명시하는 곳은 모두 세 곳(레 19:15; 신 1:17; 16:19)인데,<sup>28</sup> 그 중 레위기 19장 15절만 ‘로 + 나사 파네’의 조합으로 이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이다.<sup>29</sup> 그러나 두 본문에서 이 표현이 나타나는 맥락과 행위의 주체가 다르며, 미세한 의미상의 차이도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논할 것이다.

(3)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

레위기 19장 12절과 신명기 10장 20절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문제를 거론한다. 레위기 19장 12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맹세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신명기 10장 20절은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명령한다.

레위기 19장 11-12절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맹세하지 말라는 명령은 타인의 재산권 침해 금지 규례에 포함되어 있다. 속건제 규례(레 6:2-3)에도 나타나는 이 명령에 대해 랍비들은 타인의 재산을 훔친 후, 자연스럽게 발생하기 쉬운 속임과 거짓맹세를 한데 엮은 것이라고 본다.<sup>30</sup> 하나님 이름으로

28 출애굽기 23장 3절도 재판에서 편들지 말 것을 권고하나 그것을 공의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레위기 19장 15절은 재판에서 ‘편들지 않음’을 공의로 규정하는 첫 본문이다.

29 출애굽기 23장 3절은 가난한 자를 두둔하지 말 것을  $\text{לֹא יִשְׁכַּח}(\text{하다르})$ 로, 신명기 1장 17절과 16장 19절은  $\text{לֹא יִשְׁכַּח}(\text{나카르}) + \text{파네}$ 로 표현한다.

30 J. Milgrom, *Leviticus 17-22* (AB 3A; New York: Doubleday, 2000), 1632.

거짓맹세하지 말라는 명령은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3계명과 공명하고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으로 규정된다(레 19:12).

반면 신명기 10장 20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명령은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3계명과 문자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3계명은 예배, 법정, 일상생활 등을 포함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야훼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sup>31</sup> 더불어 이 명령이 ‘경외하라’와 ‘섬기라’와 같은 다른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성실과 충성에 대한 맹세와 관련된다면,<sup>32</sup>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과는 반대 행위가 될 것이다. 결국 레위기 19장 12절과 신명기 10장 20절의 하나님 맹세 관련 명령은 하나님의 이름의 최고 권위를 인정한다. 일견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두 명령은 모두 3계명에 기초한다.

#### (4) 하나님 경외 명령

레위기 19장 14절과 32절, 신명기 10장 12절과 20절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명령한다. 그러나 그 쓰임새는 동일하지 않다. 레위기 19장에서 이 명령은 장애인 보호와 노인 공경 규례 후에 나타나 약한 자 보호가 하나님 경외의 중요한 길임을 강조하는 듯하다. 반면, 신명기 10장 12절과 20절의 하나님 경외 명령은 그의 길로 행함, 하나님 사랑, 하나님 섬김, 계명 준수 등 다른 명령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과 예배를 요구한다.

31 J. Milgrom, *읽기*(2004), 227-228; J. D. Currid, *A Study Commentary on Deuteronomy* (Webster: Evangelical Press USA, 2006), 136-137.

32 E. J. 우즈, 「신명기」(김정훈 옮김), (TOTC 5;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185. 원제는 E. J. Woods, *Deuteronomy: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ottingham: Inter-Varsity Press, 2011).

#### (5) 너희(네) 하나님 야훼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은 ‘너희(네) 하나님 야훼’란 칭호를 공유한다. 이 호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긴밀한 상호 소속 관계를 함축한다.<sup>33</sup> 레위기 19장에서 이 호칭은 하나님의 자기소개 양식(레 19:2, 3, 4, 10, 25, 31, 34, 36)에서 주로 나타나는 반면,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에서 이 호칭은 하나님을 묘사하거나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을 요구할 때 나타난다(신 10:12(×3), 14, 17, 20, 22; 11:1). 레위기 19장에서 이 호칭은 제1계명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이 경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위해 주신 규례와 법도의 권위를 세운다. 마찬가지로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에서도 이 호칭은 쉼마(신 6:4-5)를 상기시키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이 호칭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절대 순종과 헌신을 강조한다.

#### (6) נִפְיֵן(혹코트/규례) 준수 명령

규례 준수 명령은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에서 각각 2회씩 나타난다. 레위기 19장에서 이 명령은 19절과 37절에 사용되어 레위기 19장 하반부를 한 단락으로 묶고,<sup>34</sup> 37절은 19장 전체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이 거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거룩함과 규례 준수의 상관성을 보여준다.

한편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에서 규례 준수 명령은 처음과 마지막에 배치되어 수미상응구조를 형성한다.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

33 김진명, *윳글*(2007), 81.

34 E. S. Gerstenberger, *윳글*, 273.

하라는 명령과 병행함으로써 두 명령은 등가적 중요성을 갖는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다.<sup>35</sup> 결국 규례 준수는 이스라엘이 기록해지는 길인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 3)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의 신학사상의 본문상호성

#### (1) 레위기 19장의 주요 신학사상

##### ① 이스라엘의 거룩함: 하나님 경배, 사랑, 공의

레위기 19장 3-36a절은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성취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금기와 긍정명령을 포함한다. 이 단락은 규례 준수 명령인 19절을 중심으로 3-18절(A)과 19-36a절(A')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A와 A'에는 유사한 내용을 가진 규례들이 병행한다. 규례는 하나님 경배, 대인관계에서의 존중과 사랑, 법정과 상거래에서 공의의 실천 등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분류될 수 있고,<sup>36</sup> 이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대략적인 경향이 나타난다.

	A(3-18절)	A'(19-36a절)	차이점
하나님 경배	3aβ-b, 4-8	19aβ-28, 30-31	A. 우상숭배와 신상 제조 금지 A'. 혼합과 이교적 풍습 금지, 음식법

35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의 규례 준수 명령은 레위기 19장의 명령보다 법을 뜻하는 보다 다양한 어휘들과 함께 나타난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 규례는 명령으로 번역된 מצוה(미츠바)와, 11장 1절에서는 책무라고 번역된 מצות(미쉬베레트)와 함께 나타난다.

36 존 E. 하틀리, 윗글, 621. 레위기 19장의 규례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본 점에서는 하틀리와 본 연구의 입장이 동일하지만, 각 주제를 대표한다고 분류한 세부 규례는 동일하지 않다. 또 본 연구가 레위기 19장의 규례를 세 가지 주제로 분류한 것은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사실상 레위기 19장의 규례들에서 일상생활과 예배의 영역은 분명히 구분되기보다는 상호 관련되어 있다.

대인관계에서의 존중과 사랑	3αα, 9-14, 17-18	29, 32-34	A. 동족 A'. 거류민으로 확대, 성윤리 포함
상거래와 법정에서의 공의 실천	15-16	35-36a	A. 법정에서의 공의 실천 A'. 법정과 상거래에서 공의 실천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천해야 하는 규례는 ‘하나님 경배’에 포함된다. 하나님 경배는 제의적 요소와 우상숭배 금지를 포괄한다. 레위기 19장은 제의와 윤리 규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지만,<sup>37</sup> ‘제의’라는 용어는 순수 종교 영역의 규례들을 담기에 충분하지 않다. 제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실천해야 하는 행위적 요소’인 반면, 이스라엘이 거룩하려면 제의 실천 외에도 우상숭배와 이교적 풍습을 금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가 편의상 제의적 요소로 분류한 안식일 준수(19:3αβ,30), 화목제(19:5-8), 속건제(19:20-22), 성소 경외(19:30) 등은 순수한 종교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규례들은 이웃과의 관계 증진과 회복을 넘어 모든 피조계와 공동체 전체에 적용되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함의를 지닌다.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성취하기 위해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천해야 하는 규례는 약자 우선성의 적용 가능성에 따라 ‘대인관계에서의 존중과 사랑’과 ‘법정과 상거래에서의 공의 실천’으로 구분하였다. 약자 우선성이 적용될 수 있으면 ‘사랑’을, 약자 우선성을 적용할 수 없으면 ‘공의’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3αα 절(모부 공경),<sup>38</sup> 9-10절(수확 규정), 13-14절(임금 규정), 29절(딸의 보

37 배정훈, “거룩의 재발견: 교회갱신을 위한 기초,” 『갈뎡의 종교개혁과 교회갱신』(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2), 281-284.

38 레위기 19장 3αα절은 ‘부모’를 표현하기 위하여 אָבִי(‘부’/아비브)를 앞세우지 않고, אִמִּי(‘모’/임모)를 앞세운다. 이는 당시의 일반적인 경향을 따르지 않은 표기로서, 아버지보다 상대적으로 연약한 위치에 있는 어머니에 주목하게 한다. 존 E. 하틀리, 윗글, 603.

호), 32-34절(노인 공경, 거류민 사랑)에 약자 우선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11-12절의 도둑질과 속임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약자가 더 큰 피해를 입는다. 가난한 자에 대한 도둑질과 거짓말이 그들에 대한 착취와 임금 지불 연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7절의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명령에 약자 우선성을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이 본문이 대인관계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의 기본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법정과 상거래를 위한 도량형에서 약자를 우선하게 되면 사회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질서 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가난한 자를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를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라(15절)는 명령과 재판과 도량형에서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정한 도량형을 사용하라(35-36a절)는 명령은 약자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배제함으로써 이웃과의 관계에서 약자 배려를 강조하는 다른 명령(3aα, 9-14, 29, 32-34 등)과는 대조를 이룬다.

레위기 19장은 A와 A'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랑과 공의 실천 명령을 역순으로 제시함으로써, A와 A'의 구조에 변화가 나타난다. A에서는 공의 실천 명령이 사랑 명령에 앞서고, A'에서는 사랑 명령이 공의 실천 명령보다 앞섬으로써 교차대구를 형성한다. 이웃관계에서 실천해야 할 사랑과 공의 실천의 명령 간에 형성된 교차대구는 레위기 19장이 보여주는 사랑과 공의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다.<sup>39</sup>

## ② 하나님의 거룩함: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랑, 공의

레위기 19장의 구조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이다(19:2, 36b). 그러나 레위

39 이는 거룩법전을 수사학적으로 연구하고 법의 배열과 배치와 짜임새를 통해 청자들의 법 이해를 돕고 은유와 생략과 반복 등 다양한 문학 기법으로 법전에 부드러움을 더했다는 김선종의 주장(김선종, "성결법전의 수사학과 신학," 「구약논단」 62집 (2016년 12월), 192-217)과 동일선상에 있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기 19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다. ‘나 야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 19:2)는 본문은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하나님 닮음’(imitatio dei)의 문제라고 보는 전통적인 해석의 근거가 된다.<sup>40</sup> 이스라엘이 거룩해지기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규례 중 이웃(거류민) 사랑과 법정과 상거래에서의 공의 실천 규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지한다. 즉 레위기 19장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약한 자를 포함하는 이웃에 대한 존중과 사랑, 공의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준다.

### ③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거룩함의 상호성

“너희는 거룩하라 나 야훼가 거룩함이니라”(레 19:2)는 진술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거룩함의 상호성을 내포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다. 하나님은 땅과 음식 등 이스라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특히 연약한 자에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살피셨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의로 다스리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 경배, 거류민을 포함한 이웃 사랑, 공의 실천이라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명령하신다.

## (2)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의 주요 신학사상

### 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1(신 10:14-15):

#### 이스라엘의 선택, 구원, 계약 체결

신명기 10장 14-15절은 하나님이 족장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여 그 후손들

---

40 데이비스(E. W. Davies)는 레위기 19장 2절이 하나님 닮음 원리를 가장 분명하게 표현하고,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는 곳이라고 주장한다. E. W. Davies, "Walking in God's Ways: The Concept of *Imitatio Dei* in the Old Testament," E. Ball(ed.), *In Search of True Wisdom: Essays in Old Testament Interpretation in Honour of Ronald E. Clements* (JSOTSup 300;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99-115.

을 선택하셨다고 기록한다. 신명기 7장 6절과 14장 2절과 26장 18-19절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택을 배타적인 계약으로 표현한다.<sup>41</sup> 하나님의 족장 선택으로 인한 후손 선택은 아브라함 계약(창 15장)에 이미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은 노예의 삶에서의 해방과 가나안 땅 수여를 내용으로 한다(창 15:12-21).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셔서 구원하고 계약을 체결하신 것은 하나님이 조상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 ②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2(신 10:17-18): 공의와 정의

신명기 10장 17-18절은 모든 신들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절대성을 선포한 후(17a절),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를 성품으로 묘사한다(17b-18절). 하나님은 편들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17b절).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시고, 거류민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떡과 의복을 주신다(18절).

사람을 편들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것(10:17b)은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신명기가 제시하는 필수 덕목이지만(신 1:15-18; 16:18-20), 17b절은 재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는다. פָּנֵל+נֶשֶׁב(편애하다/나사+과님)과 נֶשֶׁב+נֶשֶׁב(뇌물을 받다/라카흐+쇼하드)의 주체가 하나님일 경우, 구약성경에서 이 행위는 재판 장면에만 나타난다(욥 34:19; 대하 19:7). 사람이 주체일 경우에도 이 행위는 재판의 상황에서 판결을 굽게 하는 원인(신 16:18-20; 삼상 8:3; 잠 17:23)이나 재판관의 부조리(사 1:23; 미 3:11)를 표현하는데 종종 사용된다. 그러므로 신명기 10장 17b절이 재판을 직접 언급하는 표현이나 공의를 뜻하는 צְדָקָה(체데크)를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편들지 않음’과 ‘뇌물을 받지 않음’은 재판에서의 공의

41 C. Vang, "God's Love according to Hosea and Deuteronomy: A Prophetic Reworking of a Deuteronomic Concept," *Tyndale Bulletin* 162 no.2(2011), 186.

행함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덕목들은 강한 자의 편에 서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의미한다. 부유하거나 세력 있는 자가 편애의 대상이 되거나 뇌물을 줄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이 점에서 레위기 19장 15절과 신명기 10장 17b절의 ‘편들지 않음’의 의미에 미세한 차이가 발생한다. 로+나사+과네가 레위기 19장 15절에서는 가난한 자에게만 적용되어 약한 자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배제하지만,<sup>42</sup> 신명기 10장 17b절은 이 행위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데다 ‘뇌물을 받지 않음’을 덧붙임으로써 강한 자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을 함의한다. 공의로운 재판은 가난한 자들, 특히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는 중요한 길이므로(사 1:17, 23; 10:1-2; 렘 22:15-16 등), 이 성품은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신다고 주장하는 18절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18절은 하나님을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고 거류민을 사랑하여 떡과 의복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한다. 이 진술은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 행함과 거류민 사랑이 다른 일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이 둘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신명기 10장 18절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대상으로 각각 지목하는 고아와 과부, 거류민에 대한 이스라엘 사회의 태도는 이스라엘 사회의 정의와 공의의 가늠자로 기능하기 때문이다(사 1:17; 10:1-2; 렘 22:3). 뿐만 아니라 신명기 10장 18절이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의 정의의 대상으로, 거류민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칭했다고 하더라도 고아와 과부, 거류민을 구분하기도 어렵다. 압제와 해를 입히는 행위 금지나 이에 대한 비난(출 22:21-24; 시 94:6; 렘 7:6; 22:3; 겔 22:7; 숙 7:10; 말 3:5), 공평한 재판 요구(신 24:17-18; 27:19), 매 삼 년 십일조와 절기와 수확물 나눔 요구(신 14:28-29; 16:11-14; 24:19-22; 26:12-

---

42 레위기 19장 15절은 가난한 자를 편들지 말 것과 세력 있는 자를 특별대우하지 말라고 언급함으로써 재판에서의 공의가 어느 누구도 편들지 않는 공정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13) 등에 거류민과 고아와 과부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아와 과부와 거류민은 종종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채 나타나므로 그들에게 베풀어야 할 정의와 공의<sup>43</sup>를 사랑과 분리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신명기 10장 18절은 사랑과 정의를 같은 것으로 보게 한다.<sup>44</sup> 신명기 10장 17b-18절에 나타난 하나님 성품의 핵심은 약한 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그들의 필요 공급으로 규정할 수 있다. 법의 기능을 세력 있는 자의 착취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때, 정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이자 도구이다.<sup>45</sup> 하나님이 거류민을 사랑하신다는 진술은 먼저 이집트에서 거류민이었던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에서 실례를 찾을 수 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거류민이던 그들을 이집트 왕의 학대와 착취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준 사건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행동으로 된 정의와 등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정의는 억압받는 자, 약한 자, 착취의 잠재적인 희생자들에게로 기울어진 사랑이다.<sup>46</sup>

---

43 신명기 10장 18절이 공의가 아니라 '정의'를 가리키는 צדקה(정의/미쉬파트)를 말했음에도 공의를 함께 언급한 것은, 공의와 정의가 이시일의어를 구성하여 약한 자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의미에서의 사회정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 M. Weinfeld, "[Justice and Righteousness] - צדקה וצדק - The Expression and its Meaning," H. G. Reventlow and Y. Hoffman (ed.), *Justice and Righteousness. Biblical Themes and Their Influence* (JSOTsup 13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228. 또한 신명기 10장 18절에 공의를 의미하는 체데크나 צדק(츠다카)를 사용하지 않고, 정의를 가리키는 미쉬파트를 사용한 것은 신명기 17장의 묘수인 것 같다. 미쉬파트 대신 체데크나 츠다카를 사용했다면 신명기 10장 17-18절은 1장 16-17절과 16장 18-20절과 같이 재판장면만 특정한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신명기 17장은 18절에 미쉬파트를 사용함으로써 17절이 함축하는 재판에서의 '공의'와 함께 미쉬파트와 체데크/츠다카가 이루는 이시일의어를 상기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켰다.

44 L. E. Toombs, "Love and Justice in Deuteronomy: A Third Approach to the Law," *Interpretation: A Journal of Bible and Theology* 19 no. 4(Oct 1965), 408.

45 윗글, 408.

46 윗글, 408.

### ③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사랑(신 10:19-20): 정의와 공의, 하나님 예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지만(신 11:1), 신명기 10장 19-20절은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거류민을 사랑하는 것이다(신 10:19).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는 요구에서 하나님 닮음 원리가 나타나는 것처럼,<sup>47</sup> 하나님이 거류민을 사랑하신 방식대로(신 10:17b-18), 이스라엘도 거류민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정의로 구현되며, 이것은 약자에게로 기울어져 있다. 하나님은 약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이스라엘의 거류민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한다.

둘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신명기 10장 20절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명령은 최고의 권위와 힘을 지닌 하나님(사 48:1; 65:16; 렘 5:7; 12:16)<sup>48</sup>께 대한 경외와 섬김과 헌신을 드러낸다. 이 헌신은 일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표현된다. 21절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찬송이라고 칭하는 것은 20절의 하나님 경외와 섬김이 제의 장면이라는 것을 전제하며,<sup>49</sup> 20절의 ‘경외하다,’ ‘섬기다,’ ‘맹세하다’라는 용어가 모두 예배의 성실과 충성에 대한 맹세와 관련된다는<sup>50</sup> 점에서 그러하다.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랑을 공의와 정의 함과 예배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우상숭배 금지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그러나 신명기 4-11장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랑(신 4:37-38; 7:6-11; 10:12-11:1) 혹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사랑 명령(신 6:4-5; 7:6-11; 10:12-11:1)을 기록한 본문 전후에 우상숭배 금지 명령(신 4:15-31; 5:7-9; 6:14-15; 7:1-5; 11:28)이 배치되어

47 S. L. Cook, *읽글*, 100.

48 *읽글*, 179; R. D. Nelson, *읽글*, 137.

49 P. C. Craigie, *The Book of Deuteronom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6), 205.

50 E. J. 우즈, *읽글*, 185.

있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랑과 예배가 우상숭배를 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10장 19-20절은 거류민 등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공의와 정의의 실천, 우상숭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예배할 것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길로 제시한다.

#### ④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의 상호성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의 구조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랑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랑의 이면에는 상호성이 존재한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선택, 계약, 구원이라는 큰 틀과 공의와 정의의 행함이라는 구체적 행위로 표현된다.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제의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되 우상숭배를 겸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행함을 본받아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한다.

## 4. 나오는 말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의 구조와 언어와 신학 사상의 분석은 두 본문 간의 본문상호성이 다층적으로 발생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룩함과 사랑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스라엘의 선택과 출애굽과 거류민을 포함한 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공급과 공의에서 잘 드러난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은 이스라엘의 선택과 구원과 계약 체결, 공의와 약한 사람들의 보호와 그들의 필요에 대한 공급으로 표현된다.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제의를 통

한 예배와 우상숭배와 모든 이교적 풍습 금지를 포함하는 하나님 경배, 약한 이웃과 동료 이웃에 대한 존중과 필요의 공급과 공의 실천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사랑은 우상숭배를 겸하지 않는 예배와 공의와 약한 자 보호와 그들의 필요 공급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스라엘은 계명 준수를 통해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상호성의 측면에서도 거룩함과 사랑은 공명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이스라엘이 거룩하도록 명령되고(레 19:2),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요구된다(신 10:15, 17-19).

또한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에 대한 연구는 구약성경이 최종본문 상에서 전개될 때 개념들의 쓰임새에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랑과 공의가 대표적이다. 레위기 19장에서 사랑은 거룩함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거류민을 포함하는 이웃 간의 사랑에만 적용되었다. 그러나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랑, 이스라엘의 거류민 사랑에까지 적용 영역이 확장되었다. 레위기 19장에서 사랑은 약자 우선성이 적용될 수 있는 규례를 포함하지만,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에서는 약자 우선성이 적용될 수 없는 공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신명기에서 사랑은 공의와 정의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레위기 19장에서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공정함이 신명기 10장에서는 재판에서의 공의가 약자에게로 기울어지는 미세한 의미상의 변화에 기인한다.

이런 발견들을 통해 레위기 19장이 신명기 10장 12절-11장 1절로 전개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룩함이 사랑으로 변주되고 결론지을 수 있다. 신명기에 나타나는 확장된 사랑 개념은 이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규정하는 레위기 규례가 여호수아서 이후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묘사하지 않는다는 점은 하나

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룩함이 신명기에서 사랑으로 변주된다고 보게 한다.

## 참고문헌

- 김선중, “성결법전의 수사학과 신학,” 「구약논단」 62집 (2016년 12월), 192-217.
- 김진명, “레위기 19장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주석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7).
- \_\_\_\_\_, “레 19장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주석적 연구,” 「구약논단」 24집(2007년 6월), 74-91.
- 노세영, “레위기 18-20장의 문학적 및 신학적 의미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77집 (2020년 9월), 70-105.
- 배정훈, “거룩의 재발견: 교회갱신을 위한 기초,” 「갈뎡의 종교개혁과 교회갱신」(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2), 263-313.
- 정석규, “신명기 17:14-20의 Intertextuality를 통한 해석,” 「구약논단」 11집 (2001), 49-70.
- 정중호, 「레위기: 만남과 나눔의 장」(서울: 한들출판사, 1994).
- E. J. 우즈, 「신명기」(김정훈 옮김), (TOTC 5;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6). 원제는 Woods, E. J., *Deuteronomy: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ottingham: Inter-Varsity Press, 2011).
- 고든 J. 웬햄, 「레위기」(김귀탁 옮김), (NICOT;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4), 41-42. 원제는 Wenham, G., *The Book of Leviticu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79).
- J. E. 하틀리, 「레위기」(김경열 옮김), (서울: 솔로몬, 2005). 원제는 J. E. Hartley, *Leviticus* (WBC 4; Dallas: Word Books, 1992).
- P. D. 밀러, 「신명기」(김회권 옮김), (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원제는 Miller, P. D., *Deuteronomy*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1990).
- Cook, S. L., *Reading Deuteronomy: A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Macon:

- Smyth & Helwys Publishing, 2015).
- Cothey, A., "Ethics and Holiness in the Theology of Leviticu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30, no.2 (2005), 131-151.
- Craigie, P. C., *The Book of Deuteronom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6)
- Currid, J. D., *A Study Commentary on Deuteronomy* (Webster: Evangelical Press USA, 2006)
- Davies, E. W., "Walking in God's Ways: The Concept of *Imitatio Dei* in the Old Testament," E. Ball(ed.), *In Search of True Wisdom: Essays in Old Testament Interpretation in Honour of Ronald E. Clements* (JSOTSup 300;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99-115.
- Douglas, M., "Justice as the Cornerstone An Interpretation of Leviticus 18-20," *Interpretation: A Journal of Bible and Theology* 53 no.4 (1999), 351-360.
- Gammie, J., *Holiness in Israel*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9).
- Gerstenberger, E. S., *Leviticus: A Commentary*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3).
- Knohl, I., *The Sanctuary of Silence: The Priestly Torah and the Holiness School* (Minneapolis: Augsburg, 1995).
- Lapsley, J. E., "Feeling Our Way: Love for God in Deuteronomy," *Th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65 no.3(2003, July), 350-369.
- Levine, B. A., *Leviticus*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1989).
- Mayes, A. D. H., *Deuteronomy* (NCBC;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and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1991).
- Milgrom, J., *Leviticus: 17-22* (AB 3A; New York: Doubleday, 2000).
- \_\_\_\_\_, *Leviticus: A Book of Ritual and Ethics* (CC; Mineapolis: Fortress Press, 2004).
- Muilenburg, J., "Holiness," Butterick, G. A. (ed.) (*IDB* 2; New York: Abingdon, 1969).
- Nelson, R. D., *Deuteronomy* (OTL; Louisville ·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 Robson, J. E., "Forgotten Dimensions of Holiness," *Horizons in Biblical Theology* 33(2011), 121-146.

- Tigay, J. H., *Deuteronomy*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1996).
- Toombs, L. E., “Love and Justice in Deuteronomy: A Third Approach to the Law,” *Interpretation: A Journal of Bible and Theology* 19 no.4 (1965 Oct), 399–411.
- Vang, C., “God’s Love according to Hosea and Deuteronomy: A Prophetic Reworking of a Deuteronomic Concept,” *Tyndale Bulletin* 162, no.2 (2011), 173–194.
- Vriezen, T. C., *An Outline of Old Testament Theology* (Oxford: Basil Blackwell, 1954).
- Weinfeld, M., “‘Justice and Righteousness’ – hqdxw fpvm – The Expression and its Meaning,” H. G. Reventlow and Y. Hoffman (ed.), *Justice and Righteousness. Biblical Themes and Their Influence* (JSOTsup 13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 Wenham, G. J., *The Book of Leviticu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9).

검색어

거룩함

사랑

정경적 전개

레위기 19장

신명기 10:12-11:1

## A Variation of Holiness, Love

Jung-Ho Cho

Education Pastor(Kwangjin Church)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at holiness in Leviticus 19 is transformed as its variation into love in 10:12-11:1. The study of the structure, language, subject, and thought of the two texts shows that their intertextuality is multi-layered. The results are theologically interpreted on the premise of canonical unfolding.

In Leviticus 19, God's holiness appears as His choice of Israel, the salvation of Israel through the Exodus, His protection and provision for the poor and the weak, and His righteousness, and Israel's holiness must be accomplished through their worship of God and their practice of love and righteousness. God's holiness commands Israel's holiness. In Deuteronomy 10:12-11:1, God's love for Israel is expressed by His choice of Israel and the salvation of Israel

www.kci.go.kr

through the Exodus and their practice of righteousness and justice toward the weak, Israel's love for God is to be expressed in their worship of God and their justice and righteousness toward the weak. God's love for Israel requires Israel's love for Go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holiness is very similar to love in the Old Testament, and that holiness in Leviticus 19 is transformed as its variation into love in Deuteronomy 10:12:11. This variation is mainly due to the expansion of the concept of love when Leviticus 19 was developed into Deuteronomy 10:12:11. This study shows that the important theological concepts of the Old Testament are not fixed but change, and that, as the final text unfolds, they are transformed into the concepts that seem to be different.

## Keywords

Holiness

Love

Canonical Unfolding

Leviticus 19

Deuteronomy 10:12-11:1

- 투고일: 2020년 10월 12일
- 심사일: 2020년 10월 28일
- 게재 확정일: 2020년 10월 30일

[www.kci.go.kr](http://www.kci.go.kr)